



용감한 겁쟁이 후후

- * 글, 그림 : 김명선
- * 펴낸곳 : 단비어린이 * 정가 : 11,000원
- * 분량 : 80쪽 * 대상 : 초등 저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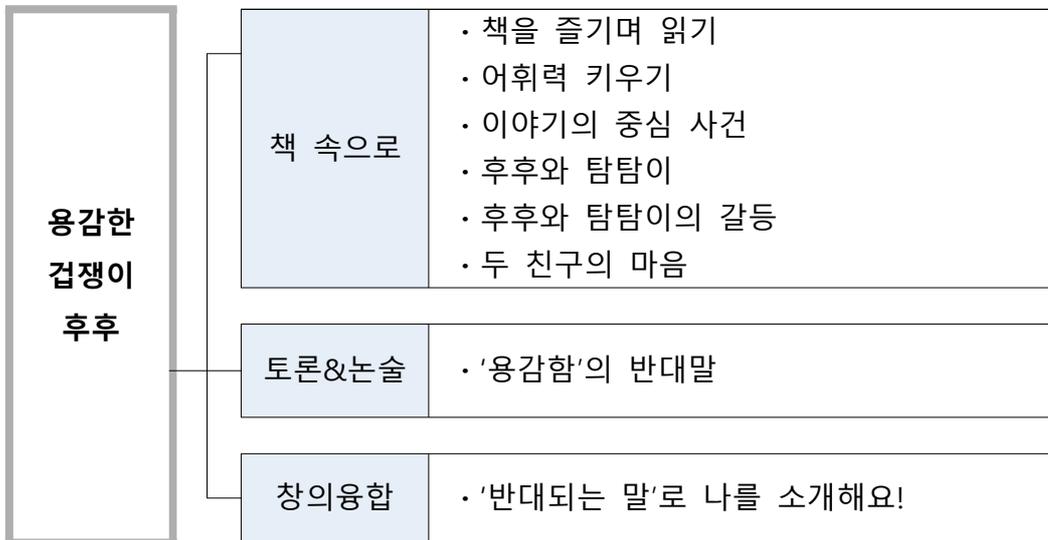
· 책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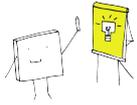
‘강하게 보이는 것’과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
어떤 것이 더 용기 있는 것일까?

우리는 가끔씩 ‘얻어 걸리는 때’를 겪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뭔가를 내 능력으로 이룬 건 아니지만 사람들은 내 능력인 줄 알고 대단하게 우러러보는 경우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 솔직하게 사실을 말하나요, 아니면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이 싫지 않아 가만히 있나요?

여기 ‘어쩌다 보니 영웅’이 된 개구리 후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구슬땀을 직접 마주했을 땐 무서워서 도망가기 바빴지만, 등에 찌힌 상처 때문에 하루아침에 ‘영광의 이빨 자국을 가진 영웅’이 되었지 뭐예요. 후후는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친구들에게, 거짓을 조금씩 보태어 경험을 부풀리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털어놓자고 하는 친구 탐탐이와는 크게 싸우고 사이도 멀어졌지요. 하지만 후후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거짓말에 스스로 견디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후후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용감한 개구리가 되고 싶은 후후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 주요 독후활동





독서 전

책 미리 보기 : 표지

-책의 앞뒤 표지의 제목, 글귀, 그림을 살펴봅시다.

1. 『용감한 겁쟁이 후후』의 책표지를 보고 드는 생각과 느낌, 궁금한 점 등을 써 보세요.

예) 주인공 후후는 개구리인 것 같다.

예) 후후와 뱀이 싸우는 이야기일까?

예) 표지 속 그림은 용감해 보이는데, 왜 제목에는 ‘겁쟁이’라는 말이 들어갔을까?

2. 『용감한 겁쟁이 후후』 뒤표지에 쓰여 있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진짜 용기는 진실을 말할 줄 아는 거야.”

진짜 내 실력은 그게 아닌데, 어찌다 보니 영웅이 되었다면
솔직하게 진실을 말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 상황을 즐기며 가만히 있을까요?
구슬뱀을 보자마자 무서워서 도망치기 바빴지만,
등에 찍힌 구슬뱀의 이빨 자국 때문에
영광의 상처를 가진 영웅이 되어 버린 후후!
유명해질수록 후후의 고민은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우리 다 같이 용감한 겁쟁이 후후의
모험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 1) 유명해질수록 후후의 고민은 왜 점점 더 커졌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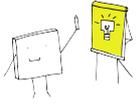
⇒ 거짓말을 해서 유명해진 것이기 때문에 점점 더 고민이 커졌을 것 같다.

- 2) 나는 스스로 용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겁쟁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예시 답안) 겁쟁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 앞에 서면 자꾸 떨기 때문이다.

- 3) ‘영웅’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요? 왜 그 사람을 떠올렸나요?

⇒ 예시 답안) 아이언맨, 정의롭고 힘이 세서 아이언맨이 떠올랐다.



독서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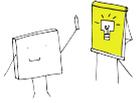
국어 교과_독서 단원 연계

책을 즐기며 읽기

- 공감하는 내용 정리하며 읽기
- 인상 깊은 내용 정리하며 읽기
- 자신의 생각을 쓰며 읽기
- 책 내용과 관련한 경험 떠올리며 읽기

1. 『용감한 겁쟁이 후후』를 읽으면서 공감하거나 하지 않는 내용, 인상 깊은 내용, 자신의 생각, 책 내용과 관련한 경험 등을 정리해 봅시다.

공감하는 내용	공감하지 않는 내용
13쪽. 나도 친구들과 아이언맨, 캡틴아메리카가 되는 역할놀이를 해 보았기 때문에 후후와 탐탐이가 노는 장면이 공감되었다.	16쪽. 친구들의 겉모습을 보고 놀리는 것은 잘못 되었다. 봉봉이의 행동은 공감이 되지 않았다.
인상 깊은 내용	책 내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
37쪽. 겁이 많지만 친구를 구하기 위해 용기를 낸 탐탐이의 모습이 인상 깊었다.	진짜로 용감한 건 탐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겁이 많다는 걸 인정하고, 친구에게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 돕는 모습이 멋있었다.
책 내용과 관련한 경험	
나도 친구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다가 진실을 말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그 얘기가 나올까 봐 힘들었다.	



독서 후

국어 교과_독서 단원 연계 어휘력 키우기

1. 『용감한 겁쟁이 후후』에 나오는 문장을 읽고, 그 속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지 보기에서 골라 적어 보세요.

[보기]

퐁퐁, 히죽히죽, 폴짝폴짝, 우르르 광광!, 데굴데굴, 오소소

- ① 봉봉이와 함께 다니는 일당들이 _____ 웃었어요. (히죽히죽)
- ② 팔에 _____ 소름이 돋았어요. (오소소)
- ③ 용기가 _____ 샘솟았어요. (퐁퐁)
- ④ 후후는 _____ 뱀산을 올랐어요. (폴짝폴짝)
- ⑤ 탐탐이는 비탈길을 _____ 굴렀지요. (데굴데굴)
- ⑥ _____ 천둥이 뱀산에 울려 퍼졌어요. (우르르 광광!)

2) 위의 단어들 중 모양을 흉내 내는 말과 소리를 흉내 내는 말을 나누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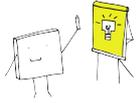
[모양을 흉내 내는 말]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 낸 말. 예) 아장아장, 엉금엉금

[소리를 흉내 내는 말]

사람이나 사물의 소리를 흉내 낸 말. 예) 싹싹, 멍멍, 야옹

- ① 모양을 흉내 내는 말 : 퐁퐁, 히죽히죽, 폴짝폴짝, 데굴데굴, 오소소
- ② 소리를 흉내 내는 말: 우르르 광광!



독서 후 책 속으로_ ① 이야기의 중심 사건

1. 이 책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정리해 봅시다. ㉠~㉤를 읽고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기호를 나열하세요. ㉠-㉡-㉢-㉣-㉤-㉥-㉦

- ㉠ 후후와 탐탐이는 구슬뱀 비늘을 가지러 뱀산을 올랐다.
- ㉡ 후후 등에는 개골킹처럼 구슬뱀의 이빨 자국이 찍혀 있었고, 후후는 그걸 자랑스러워한다.
- ㉢ 봉봉이가 후후에게 겁쟁이가 아니라면 구슬뱀 비늘을 가져 와 보라고 했다.
- ㉣ 등에 난 상처가 나뭇가지에 찍힌 거라는 걸 알게 된 후후는 안심한다.
- ㉤ 구슬뱀에게 잡혀 죽을 뻔한 후후를 탐탐이가 독수리 소리를 내서 살려 준다.
- ㉥ 후후는 친구들에게 지어낸 이야기를 들려주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탐탐이와 다투게 된다.
- ㉦ 구슬뱀에게 물리면 독이 서서히 퍼져 한 달 안에 죽는다는 소문을 듣고, 후후는 겁에 질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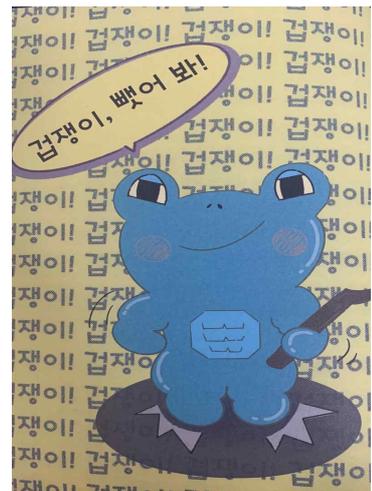
2. 이 책에 나온 다음 각 장면이 표현하는 이야기를 정리하여 써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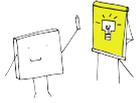
① 후후가 친구들에게 구슬뱀 한 마리가 아닌, 백 마리와 싸워 이긴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



② 후후가 등에 상처를 보고, 깜짝 놀란다. 그리고 개골킹처럼 영광의 이빨 자국이 생겼다고 좋아한다.



③ 봉봉이가 후후와 탐탐이를 겁쟁이라고 놀리고 있다.



독서 후 책 속으로_ ② 후후와 탐탐이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어이, 말뚱!”

같은 반 친구 봉봉이가 후후와 탐탐이에게 알은체했어요.

봉봉이는 후후와 탐탐이를 말뚱이라고 놀렸어요. 말뚱이는 말라깽이와 뚱보를 줄인 말이에요. 말라깽이는 후후고, 뚱보는 탐탐이에요.

① 봉봉이는 후후와 탐탐이에게 어떤 별명을 지어 주었나요? 그 별명을 후후와 탐탐이는 좋아했나요?

⇒ 말뚱이라는 별명을 지어 주었다. 후후와 탐탐이는 기분이 나빴을 것 같다.

② 나에게도 별명이 있나요? 있다면 별명과 어떤 뜻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 (생략)

③ 친구를 별명으로 부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두 친구의 의견을 읽고, 내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친구를 별명으로 부르는 건 옳지 않아!	친구를 별명으로 불러도 된다고 생각해!
친구의 예쁜 이름이 있는데, 별명으로 부르는 건 옳지 않아. 그리고 친구의 별명은 대부분 놀리려고 지은 게 많아. 특히 외모를 놀리려고 지은 별명들이 많지.	봉봉이처럼 친구를 놀리려고 지은 별명이 아니라면 별명으로 불러도 된다고 생각해. 예쁜 별명을 지어주고, 별명으로 부르면 더 특별한 사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

⇒ 예시 답안) 친구를 별명으로 불러도 된다고 생각한다. 서로 예쁜 별명을 지어주고, 그렇게 불러주면 더욱 사이가 좋아질 것 같다.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후후가 물속으로 뛰어들며 소리쳤어요.

“용감한 후후 님이 구해 줄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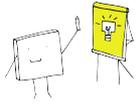
후후는 ‘용감하다’라는 말을 가장 좋아했어요. 가장 듣기 싫은 말은 ‘겁쟁이’였고요.

① 후후가 가장 좋아하는 말과 싫어하는 말은 무엇인가요?

⇒ 용감하다는 말을 가장 좋아하고, 겁쟁이라는 말을 싫어한다.

② 나는 어떤 말을 가장 듣고 싶나요? 반대로 가장 듣기 싫은 말은 무엇인가요?

⇒ 예시 답안) 나는 “네 덕분에 행복해”라는 말을 가장 듣고 싶다. 가장 듣기 싫은 말은 “네가 망쳤어!”라는 말이다.



독서 후 책 속으로_ ③ 후후와 탐탐이의 갈등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구슬뱀한테 잡아먹히는 것보단 봉봉이한테 잘 말해서…….”
 후후가 더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그깟 구슬뱀이 뭐가 무섭다고. 난 겁쟁이가 아니야. 용감한 후후라고!”
 후후가 주먹을 쥐고 연잎 위에 우뚝 섰어요.

(나) 어느 날, 탐탐이가 말했어요.
 “후후야, 거짓말 그만하자. 거짓말은 비겁해.”
 후후가 탐탐이를 설득했어요.
 “원래 모든 이야기엔 거짓을 조금씩 보태는 거야.”
 “개골킹은 거짓말하지 않아.”
 “거짓말 좀 하면 어때. 봉봉이도 더는 괴롭히지 않고, 이제 우리가 대장이야.”
 “거짓말로 대장 되는 건 용감하지 않아. 비겁하다고!”
 후후와 탐탐이는 ‘용감하다’와 ‘비겁하다’를 놓고 한참 실랑이했어요.

1. (가)에서 ‘구슬뱀의 비늘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 후후와 탐탐이는 각자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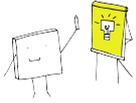
후후	탐탐
⇒ 구슬뱀의 비늘을 가져오면 용감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	⇒ 구슬뱀의 비늘을 가져오는 건 너무 위험한 일이다. 봉봉이에게 잘 말해서 없던 일로 하는 게 좋다.

2. (나)에서 ‘이야기에 거짓말을 보태는 것’에 대해 후후와 탐탐이는 각자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후후	탐탐
⇒ 이야기에는 거짓을 조금씩 보태도 된다고 생각한다.	⇒ 거짓말로 대장이 되는 건 용감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3. 나는 ‘이야기에 거짓말을 보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 예시 답안) 비겁하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인정을 받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독서 후 책 속으로_ ④ 두 친구의 마음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후후가 자기 몸을 보고는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소리쳤어요.

“몸에 멍 든 것 좀 봐. 으윽-. 다리도 부러진 것 같아.”

탐탐이가 침착하게 후후를 부축했어요. 멀리서 다시 구슬 소리가 들렸어요. 후후는 금방이라도 오줌을 지릴 것만 같았어요.

탐탐이는 주문처럼 같은 말을 계속했어요.

(나) 선생님이 생각난 듯 후후 등에 반창고를 붙였어요.

“등에 난 상처도 곧 나을 게다. 나뭇가지에 찌힌 거니까.”

“나뭇가지요? 독뱀한테 물린 건데.”

후후가 저도 모르게 대꾸했어요.

선생님이 빙긋 웃으며 말했어요.

“독뱀? 그럼 바로 죽었을 걸? 나뭇가지에 찌힌 거니까 상처 딱지가 떨어지면 자국도 사라질 거다.”

“그럼, 저 안 죽어요? 진짜로 안 죽어요?”

1. (가)에서 친구를 구하러 가는 탐탐이는 어떤 말을 주문처럼 외웠을까요? 나라면 어떤 말을 했을지 상상해서 적어 보세요.

⇒ 예시 답안) 제발 살려 주세요!

2. (나)의 장면을 연극으로 만든다고 할 때, 밑줄의 대사에는 어떤 지문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지문은 등장인물이 어떤 표정과 몸짓으로 연기해야 하는지 알려 주는 지시문이에요.)

⇒ 예시 답안) 깜짝 놀란 듯이, 큰 목소리로 등

3. 탐탐이는 다친 후후를 무사히 병원에 데려다 주었어요. 후후가 되어 탐탐이에게 감사 편지를 적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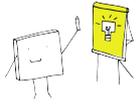
⇒ 예시 답안) 탐탐이에게,

탐탐아, 내 목숨을 구해줘서 고마워.

나를 구해준 네가 정말 용감한 사람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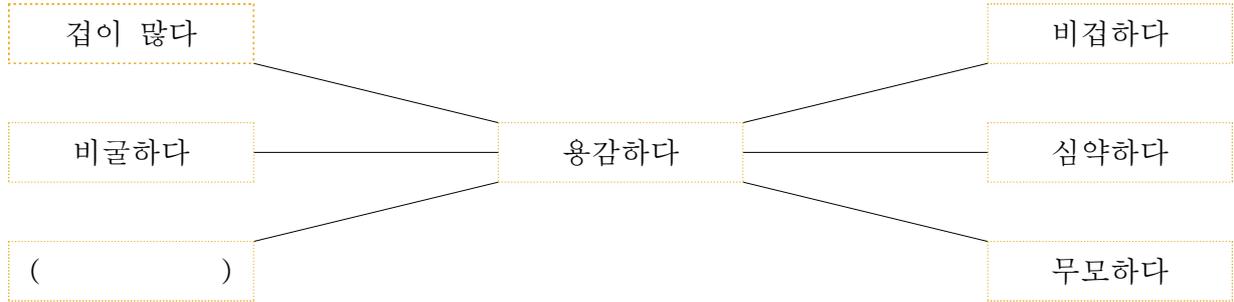
앞으로도 꼭 친하게 지내자.

후후가



독서 후 토론&논술_ '용감함'의 반대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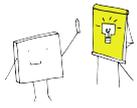
1. '용감하다'의 반대되는 말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반대말을 생각해 보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적어 보세요. (*모르는 단어는 사전에서 찾아보세요.)



(가이드) 심약하다: 마음이 여리고 약하다.

무모하다: 앞뒤를 잘 헤아려 깊이 생각하는 신중성이나 꺾이 없다.

*반대되는 말의 정답은 없습니다. 무엇을 '용감하다'고 생각하는지 각자 다른 생각을
들어보고, 그것에 반대되는 상황은 무엇인지 고민해 본 뒤에 글을 적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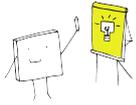
독서 후 창의융합_ 반대되는 말로 '나'를 소개해요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죽는 줄 알고 무서워서 혼났네. 탐탐아. 나 겁쟁이 같지?”
 탐탐이가 빙그레 웃으며 대꾸했어요.
 “겁쟁이면 어때? 나도 겁쟁이인걸. 네가 살아남아서 정말 다행이야.”
 후후가 여름 햇살에 샛노란 구슬땀 비늘을 비추며 씩씩하게 말했어요.
 “우린 진짜 용감한 겁쟁이야!”

1. ‘용감하다’라는 말과 ‘겁쟁이’라는 말은 반대되는 말이지만, 누구나 용감할 때가 있고, 겁쟁이일 때가 있어요. 반대되는 성질이 우리 안에 있는 거지요. 이렇게 반대되는 말로 나를 소개해 보세요. 그리고 그 소개에 맞는 그림을 그려 나를 표현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가이드) 나는 친절하고 불친절해, 나는 순하고 사나워, 나는 침착하고 덜렁거려, 나는 마음이 넓고, 소심해 등 성격을 나타내는 다양한 말들을 알려주고 고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두 성격 모두 ‘나’인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또 어떨 때 그런 모습이 나오는지 얘기해보고,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답과 해설(예시 답안)

2쪽	<p>(예시답안) 1. 예) 주인공 후후는 개구리인 것 같다. 예) 후후와 뱀이 싸우는 이야기일까? 예) 표지 속 그림은 용감해 보이는데, 왜 제목에는 ‘겁쟁이’라는 말이 들어갔을까?</p> <p>2. 1) 거짓말을 해서 유명해진 것이기 때문에 점점 더 고민이 커졌을 것 같다. 2) 예시 답안) 겁쟁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 앞에 서면 자꾸 떨기 때문이다. 3) 예시 답안) 아이언맨, 정의롭고 힘이 세서 아이언맨이 떠올랐다.</p>												
3쪽	<p>1. 예시 답안)</p> <table border="1" data-bbox="280 748 1353 1469"> <thead> <tr> <th data-bbox="280 748 826 801">공감하는 내용</th> <th data-bbox="826 748 1353 801">공감하지 않는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280 801 826 981">13쪽. 나도 친구들과 아이언맨, 캡틴아메리카가 되는 역할놀이를 해 보았기 때문에 후후와 탐탐이가 노는 장면이 공감되었다.</td> <td data-bbox="826 801 1353 981">16쪽. 친구들의 걸모습을 보고 놀리는 것은 잘못 되었다. 봉봉이의 행동은 공감이 되지 않았다.</td> </tr> <tr> <th data-bbox="280 981 826 1048">인상 깊은 내용</th> <th data-bbox="826 981 1353 1048">책 내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th> </tr> <tr> <td data-bbox="280 1048 826 1240">37쪽. 겁이 많지만 친구를 구하기 위해 용기를 낸 탐탐이의 모습이 인상 깊었다.</td> <td data-bbox="826 1048 1353 1240">진짜로 용감한 건 탐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겁이 많다는 걸 인정하고, 친구에게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 돕는 모습이 멋있었다.</td> </tr> <tr> <th colspan="2" data-bbox="280 1240 1353 1317">책 내용과 관련한 경험</th> </tr> <tr> <td colspan="2" data-bbox="280 1317 1353 1469">나도 친구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다가 진실을 말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그 얘기가 나올까 봐 힘들었다.</td> </tr> </tbody> </table>	공감하는 내용	공감하지 않는 내용	13쪽. 나도 친구들과 아이언맨, 캡틴아메리카가 되는 역할놀이를 해 보았기 때문에 후후와 탐탐이가 노는 장면이 공감되었다.	16쪽. 친구들의 걸모습을 보고 놀리는 것은 잘못 되었다. 봉봉이의 행동은 공감이 되지 않았다.	인상 깊은 내용	책 내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	37쪽. 겁이 많지만 친구를 구하기 위해 용기를 낸 탐탐이의 모습이 인상 깊었다.	진짜로 용감한 건 탐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겁이 많다는 걸 인정하고, 친구에게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 돕는 모습이 멋있었다.	책 내용과 관련한 경험		나도 친구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다가 진실을 말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그 얘기가 나올까 봐 힘들었다.	
공감하는 내용	공감하지 않는 내용												
13쪽. 나도 친구들과 아이언맨, 캡틴아메리카가 되는 역할놀이를 해 보았기 때문에 후후와 탐탐이가 노는 장면이 공감되었다.	16쪽. 친구들의 걸모습을 보고 놀리는 것은 잘못 되었다. 봉봉이의 행동은 공감이 되지 않았다.												
인상 깊은 내용	책 내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												
37쪽. 겁이 많지만 친구를 구하기 위해 용기를 낸 탐탐이의 모습이 인상 깊었다.	진짜로 용감한 건 탐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겁이 많다는 걸 인정하고, 친구에게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 돕는 모습이 멋있었다.												
책 내용과 관련한 경험													
나도 친구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다가 진실을 말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그 얘기가 나올까 봐 힘들었다.													
4쪽	<p>1. ① 히죽히죽 / ② 오소소 / ③ 풍풍 / ④ 폴짝폴짝 / ⑤ 데굴데굴 / ⑥ 우르르 광광!</p> <p>2. ① 모양을 흉내 내는 말 : 풍풍, 히죽히죽, 폴짝폴짝, 데굴데굴, 오소소 ② 소리를 흉내 내는 말: 우르르 광광!</p>												
5쪽	<p>1. ㉠-㉡-㉢-㉣-㉤-㉥-㉦-㉧</p> <p>2. ① 후후가 친구들에게 구슬땀 한 마리가 아닌, 백 마리와 싸워 이긴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 ② 후후가 등에 상처를 보고, 깜짝 놀란다. 그리고 개골킹처럼 영광의 이빨 자국이 생겼다고 좋아한다. ③ 봉봉이가 후후와 탐탐이를 겁쟁이라고 놀리고 있다.</p>												
6쪽	<p>1. ① 말뚱이라는 별명을 지어 주었다. 후후와 탐탐이는 기분이 나빴을 것 같다. ② (생략) ③ 예시 답안) 친구를 별명으로 불러도 된다고 생각한다. 서로 예쁜 별명을 지어주고, 그렇게 불러주면 더욱 사이가 좋아질 것 같다.</p> <p>2. ① 용감하다는 말을 가장 좋아하고, 겁쟁이라는 말을 싫어한다.</p>												

	② 예시 답안) 나는 “네 덕분에 행복해”라는 말을 가장 듣고 싶다. 가장 듣기 싫은 말은 “네가 망쳤어!”라는 말이다.								
7쪽	<p>1.</p> <table border="1"> <thead> <tr> <th>후후</th> <th>탐탐</th> </tr> </thead> <tbody> <tr> <td>⇒ 구슬땀의 비늘을 가져오면 용감하다고 인정 받을 수 있다.</td> <td>⇒ 구슬땀의 비늘을 가져오는 건 너무 위험한 일이다. 봉봉이에게 잘 말해서 없던 일로 하는 게 좋다.</td> </tr> </tbody> </table> <p>2.</p> <table border="1"> <thead> <tr> <th>후후</th> <th>탐탐</th> </tr> </thead> <tbody> <tr> <td>⇒ 이야기에는 거짓을 조금씩 보태도 된다고 생각한다.</td> <td>⇒ 거짓말로 대장이 되는 건 용감하지 않다고 생각한다.</td> </tr> </tbody> </table> <p>3. 예시 답안) 비겁하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인정을 받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p>	후후	탐탐	⇒ 구슬땀의 비늘을 가져오면 용감하다고 인정 받을 수 있다.	⇒ 구슬땀의 비늘을 가져오는 건 너무 위험한 일이다. 봉봉이에게 잘 말해서 없던 일로 하는 게 좋다.	후후	탐탐	⇒ 이야기에는 거짓을 조금씩 보태도 된다고 생각한다.	⇒ 거짓말로 대장이 되는 건 용감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후후	탐탐								
⇒ 구슬땀의 비늘을 가져오면 용감하다고 인정 받을 수 있다.	⇒ 구슬땀의 비늘을 가져오는 건 너무 위험한 일이다. 봉봉이에게 잘 말해서 없던 일로 하는 게 좋다.								
후후	탐탐								
⇒ 이야기에는 거짓을 조금씩 보태도 된다고 생각한다.	⇒ 거짓말로 대장이 되는 건 용감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8쪽	<p>1. 예시 답안) 제발 살려 주세요! 2. 예시 답안) 깜짝 놀란 듯이, 큰 목소리로 등 3. 예시 답안) 탐탐이에게, 탐탐아, 내 목숨을 구해줘서 고마워. 나를 구해준 네가 정말 용감한 사람이야. 앞으로도 꼭 친하게 지내자. 후후가</p>								
9쪽	<p>(가이드) 심약하다: 마음이 여리고 약하다. 무모하다: 앞뒤를 잘 헤아려 깊이 생각하는 신중성이나 꾀가 없다. *이 문제에서 반대되는 말의 정답은 없습니다. 무엇을 ‘용감하다’고 생각하는지 각자 다른 생각을 들어 보고, 그것에 반대되는 상황은 무엇인지 고민해 본 뒤에 글을 적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p>								
10쪽	<p>(가이드) 나는 친절하고 불친절해, 나는 침착하고 덜렁거려, 나는 마음이 넓고, 소심해 등 성격을 나타내는 다양한 말들을 알려주고 고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두 성격 모두 ‘나’인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또 어떨 때 그런 모습이 나오는지 얘기해보고,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p>								